

골롬반 선교

2020년 가을호 vol.116

춘천교구
죽림동 성당 100주년
(1920-2020)

“출발”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교회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0년 가을호 vol.116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표징 안인성 패트릭 신부

죽림동성당 100년, 04 춘천교구에서의 골롬반 선교를 돌아보며
강원도와 골롬반 선교 오기백 다니엘 신부

08 골롬반회와 인연 홍기선 하지노 신부

10 그리운 나의 신부님 김영자 수산나 후원회원

지원사제 12 우리 공소에 빛이 있다 박상호 라파엘 신부

평신도선교사 14 제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루다 이그발릭 선교사

16 코로나19와 가난한 사람들 김선희 안나 선교사

선교사의 창 18 신학원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안광훈 로벨도 신부

선교 단상 20 코로나 속 첫 본국 휴가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한국 이야기 22 이주민과 함께 걷기 권세오 곤잘로 신부

신학원 24 영성의 해를 마치고 성요셉 요셉 신학생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100주년을 맞은 춘천교구 죽림동 예수성심 주교좌성당(사진: 김소영)

1938년 구인란 주교가 성당 부지를 마련하였으나 태평양전쟁, 6·25전쟁으로 건축이 거듭 중단되었다. 휴전 후 전쟁 때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하였다. 뒤뜰의 묘역에는 전쟁 순교자 네 분을 포함 일곱 분의 골롬반 선교사의 묘와 가묘가 있다. 역사의 아픔과 영광을 간직하며 발전한 죽림동성당은 골롬반회의 강원도 선교의 상징이기도 하다. 구인란 주교, 박 토마스 주교가 교구장으로 일했으며, 골롬반회원 26명이 이곳에서 사목하였다.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표징



안인성 패트릭 신부
『골롬반선교』 편집장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고마움이란 “소박하면 서도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표징”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경험을 대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맙습니다”는 우 리가 온전하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혹은 구원받았다 고 느낄 때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이 아닐 까요. 이것은 미사 중 감사기도가 중심을 차지하는 분 명한 이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가을호에서는 특별히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춘천교구 주교좌 죽림 동성당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죽림동성당 100주년은 지목구로 출발한 1939년부 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의 참화, 전후 재건을 거쳐 정 식 교구로 설정된 1962년까지 아우르는 춘천교구의 역 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골롬반 선 교사들은 1938년부터 2002년까지 70년 가까이 강원 도에서 사목하며 역사적 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 상의 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랬기에 신자들과 발 맞춰 걸으며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특전을 누 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동행은 일부 선교사들에 게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 순교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 토마스 주교와 박 토마스 주교뿐만 아니라 춘천교구 신자들을 위해 봉사했던 90명에 가까운 골 롬반회 선교사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할 수 있 어 좋습니다. 오류를 범한 적도 확실히 있었겠지만, 이 선교사들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를 만 들기 위하여 춘천교구와 함께했습니다.

춘천교구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은 종료를 맞았지만, 그때의 선교 경험과 정신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번 가을호에서는 대만, 페루, 필리핀, 그리고 이곳 한국 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초월해 내미는 이들의 손길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소박하면서도 진정 어린 증언입니다.

편집장으로서 처음 펴내는 가을호를 통해 제 전임 자 김종근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미로 무사히 귀 환하시어 오랜 친구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고, 하 느님의 축복 안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하시길 기원 합니다. 편집장을 맡게 된 저로서는 앞으로 신부님의 삶과 사목에 관한 글을 많이 게재할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편집실의 변화와 함께 『골롬반선교』에도 몇 가지 변화가 찾아올 예정인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3월, 9월, 12월로 연 3회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횟수는 줄었지 만,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전달하고, 유익하면서도 함께 생 각하면 좋은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목표를 변함없이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곧 한가위 명절입니다. 이 뜻깊은 시기에 조 상과 가족, 친지, 친구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조용히 건네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움은 “소박하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

춘천교구에서의 골롬반 선교를 돌아보며



오기백 다니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75년 아일랜드에서 사제서품 후 다음 해 한국에 파견되어 광주대교구 흑산·목포 연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고, 1980년부터는 인천교구 부천 노동사목, 서울대교구 봉천9동 도시빈민사목의 현장에서 활동하였다. 1998년부터 네 차례 한국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일했으며, 현재 골롬반회 신학원장으로서 신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

1938년, 교황청은 강원도 지역 사목을 경성대목구에서 분리시키면서 춘천지목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목을 성골롬반외방전교회에 위임하였다. (...) 구인란 신부가 1940년 12월 8일 지목구장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 당시 춘천지목구의 신자는 9,000여 명이었으며, 본당은 11개, 방인 사제는 5명, 골롬반회 사제는 14명이었다.

— 춘천교구 홈페이지 교구 역사 소개 참조 —

”

춘천지목구에서 주된 활동은 전라남도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교회 건물을 짓거나 의료,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룹의 구성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지리적인 면과 기후가 남쪽 지역과 달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춘천 선교사들은 그들의 고유한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춘천교구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였던 아일랜드 출신 구인란 토마스(Thomas Quinlan) 신부, 호주 출신 조선희 필립보(Philip Crosbie) 신부, 뉴질랜드 출신 오 후베르토(Hubert Hayward) 신부가 교구 내 골롬반 선교사들의 분위기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 분은 출신 국가가 각각 달랐지만 그들 사이의 깊은 유대는 어떤 특정 국적보다 '골롬반'이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냈고, 이는 교구 내 골롬반 회원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뉴질랜드, 미국, 호주 출신의 골롬반 신부들은 한국에서 추방되었고, 중립국인 아일랜드 출신 신부들은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던 몇 달 동안 골롬반 신부들은 홍천본당으로 이동되어 연금되었는데, 1945년 8월 6일, 길 헨리(Henry Gilen) 신부는 31세의 나이에 간단



춘천교구 2대, 4대 교구장 구인란 토마스 주교
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선종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가신 첫 골롬반 회원이며 홍천 천주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15명의 골롬반 신부들이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명은 전쟁 중에 순교하여 죽림동성당 내 순교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구 토마스 주교와 조선희 신부는 북한군에 끌려가 3년을 북한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조 신부가 쓴 체험 수기 『기나긴 겨울』(조선희 지음, 허종열 옮김, 가톨릭출판사)은 전쟁 포로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휴전 선언 후 춘천교구의 골

롬반 신부들은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강원도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배급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강원도는 골롬반 회원에게 어려운 선교지였습니다. 높고 험한 산과 극한의 기후는 선교사들이 겨울에는 눈으로, 여름에는 홍수로 종종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술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안성도(Arthur McMahon) 신부는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주 프로그램을 통해 잘 회복되었으며, 이후 20년간 한국 사회에 이 단주 프로그램을

춘천교구 5대 교구장 박 토마스 주교
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확산시키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백 바오로 (Paul White) 신부는 도박 중독에 걸렸으나 12단계의 단도박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되었고, 그분 또한 한국 사회에서 단도박 운동을 펼쳤습니다. 두 신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자신의 어려움과 약점을 극복하여,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대선배 골롬반 선교사 구인란 토마스, 박 토마스 주교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두 분은 하느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계시니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춘천교구에서 선교 생활 하셨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두 분의 옛 사진을 찾아 오랫동안 관찰했고 눈, 코, 입, 그림자 등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아, 주교님은 온화한 미소가 있었구나', '주교님의 눈은 참 깊고 많은 기운을 전해 주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영혼으로 통하는 창'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두 분의 얼굴을 그리면서 마치 그분들의 영혼에 잠시 들어간 듯, 주교님들을 만난 듯 아주 친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두 주교의 초상화를 그린 안재선 제이슨 신부의 소감

1965년 춘천교구가 분리되어 원주교구가 탄생하였고, 그다음 해에 구 토마스 주교의 사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구 주교가 재임하는 동안 강원도에 30개 본당과 150개 공소가 지어졌고, 여러 수도회가 교구에 초대되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많은 수도자들이 본당으로 파견되었으며,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의료 활동을 시작했고, 성심수녀회가 여자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후임자인 박 토마스(Thomas Stewart) 주교는 가정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고 박 주교 덕분에 춘천교구에서 출발한 '행복한 가정 운동'이 전국에 확산하였습니다. 그는 주교로서 28년 재임하는 동안 53명의 한국 사제를 서품해 주었습니다. 교구 사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골롬반 회원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신설 본당과 새로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춘천교구를 떠났습니다.

1938년부터 70년간 89명의 골롬반 선교사들이 춘천교구에서 활동하였고, 2020년 9월 현재, 60명이 선종하였는데, 그중 11명이 한국 땅에 묻혔으며 아홉 분은 춘천교구에 묻혀 계십니다. 춘천교구에서 활동한 마지막 회원인 공 토마스(Thomas Comerford) 신부는 2009년 춘천에서 선종하였고, 그가 사목하였던 죽림동성당에 묻혔습니다.

오늘날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가 춘천교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구 소속 장성준 안셀모 신부가 피지에서 골롬반 지원사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춘천교구 출신의 두 명이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수녀로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구 신자들은 골롬반 선교의 후원자로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교구와 골롬반회가 늘 계속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일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

작년 여름, 골롬반회 신학원 신부들과 신학생,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롬반수녀회 수녀가 죽림동성당을 방문하여 순교자 및 성직자 묘역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선배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가을호

골롬반회와 인연



홍기선 하지노 신부

춘천교구 죽림동 예수성심 주교좌성당 주임 신부이다. 1989년 사제서품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법원 검찰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춘천교구 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해안 최북단에 거진 본당이 있다. 나는 그 본당 출신 신부이다. 거진에서 중학교 졸업 때까지 살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의 소신학교를 다녔다. 사제가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서울과 전라도 광주의 물을 먹으면서 살았다. 물론 방학 때에는 거진의 고향 집에서 지냈으니, 사제가 될 때까지 그곳은 나를 품어 주고 길러 준 곳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9할은 거진의 바닷바람이었다.

거진 본당은 1976년 8월에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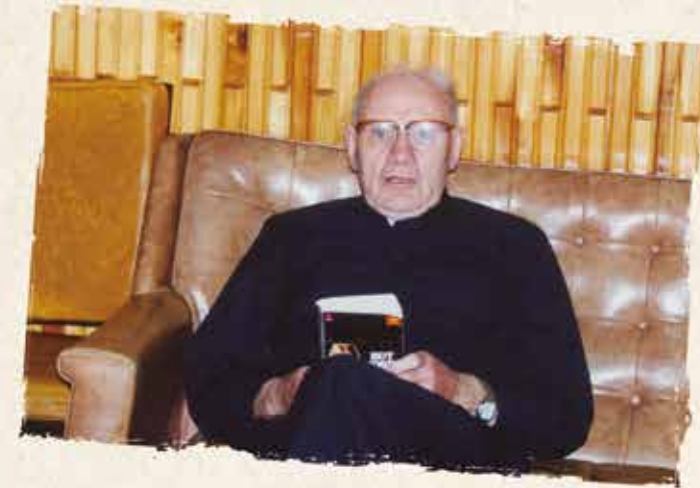
격했다. 내가 14살 되던 때이다. 공소 시절부터 골롬반 사제들을 만났다. 본당으로 승격되자 오 후베르토 신부님이 오셨고 그분은 내 젊은 날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그분 밑에서 복사하면서 성장했고 소신학교를 갔으며 대신학교를 거쳐, 1989년에 사제가 되었다. 나의 본당 주임 사제는 언제나 오 후베르토 신부님이었다.

오 신부님을 통해 골롬반 선교사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정겨운 시간을 가졌고, 여름에는 물치 바닷가 휴양소에

춘천교구 제6대 교구장故 장익 주교와 골롬반회故 조선희 필립보 신부. 6·25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 3년간 죽음의 행진을 겪고 돌아온 조선희 신부는 1998년 귀국할 때까지 58년을 강원도에서 사목했다. 그는 인제에 평화와 보석을 위한 기도의 집 '갯세마니 피정의 집'을 지었는데, 사진은 장익 주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이다.



공 토마스 신부. 2009년까지 60년 넘게 강원도에서 사목하였다. 죽림동성당 재임 시절(1951~1958) 전쟁 때 파괴된 성당을 복구하여 완공을 마무리하였다. 2009년 2월에 선종하여 죽림동성당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오 후베르토 신부. 죽림동성당 주임(1948~1950) 때 성당 건축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전쟁으로 중단되고 성당이 폭격을 맞는 일을 겪었다. 북한 이천성당 등 강원도에서 약 50년간 사목했다.

서 휴가를 보냈다. 어쩌다 나도 동행할 기회가 오기도 했는데 조선희 필립보 신부, 공 토마스 신부, 임 요한 신부, 나 요한 신부 등등 모두 그곳에서 만났다. 소신학교 때에는 서울 돈암동의 골롬반 본부도 알게 되었다. 그곳에 고모부가 평신도로 일하고 계셨기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무심했다. 그런 곳이 있구나, 정도였다.

사제가 된 후, 춘천 효자동 보좌 시절에는 주교관에서 박 토마스 주교님과 일 년 동안 함께 식사하며 지냈다. 그렇게 주교님을 가까이 뵈고 알게 되었다. 로마 유학 시절 아일랜드 달간 파크(골롬반회 옛 총본부와 신학교, 현재 아일랜드 지부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루를 보냈다. 돌아가신 박 토마스 주교님의 무덤을 확인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고 문혀 계신 여러 신부님을 알게 되었다. 무척 반가웠다.

귀국하여 여러 본당을 사목했다. 홍천 본당을 사목하면서 88년 역사책을 썼다. 조선희 필립보 신부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다. 2017년 죽림동 주교좌 본당에 와서 금년에 100년사를 집필했다. 두 책을 쓰면서 주님께 감사했다. 돌아가신 골롬반 신부님들이 모두

부활하여 내 앞에 나타나신 듯했다.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알게 되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육체 속에 깃든 강인한 선교사들의 정신과 성령의 힘찬 활동을 볼 수 있었다. 내게 모두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0년 동안 춘천교구에서 활동하셨던 88명의 골롬반 선교사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들 모두의 모습을 이곳 죽림동 100년사를 집필하며 좀 더 집중하여 볼 수 있었다. 은총의 시간이었다. 6개월 정도를 새벽녘까지 행복하게 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어떤 때는 그분들이 100년사를 집필하고 있는 나를 돕고 계신다는 느낌도 받았다. 지금까지 잘못 알거나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너무도 우연히 실체를 드러낼 때에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느낌까지 받았다. 적어도 그 느낌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Peregrinatio Pro Christo)'를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난 그들은 순례지로 한국을 택했고 강원도에서 삶을 살았다. 목숨을 바쳐 벼를 위한 사랑을 증거했다. 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들을 알게 되어서!

그리운 나의 신부님



김영자 수산나 후원회원 / 인터뷰·기리암 신부, 김소영(편집실)

죽림동성당 신자였던 김영자님은 춘천에서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원으로서 선교사들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때 골롬반회 고 안토니오 신부가 순교하면서 목숨을 살린 춘천 소양로성당 복사 김경호 가브리엘의 동생이기도 하다.

6·25전쟁 때 춘천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기억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당시 우리 가족은 춘천 효자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 나이는 14살이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황황!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서 처음엔 천둥소리인 줄 알았지요. 춘천은 인민군들이 점령했다가 군인들이 수복했다 하는 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폭격 맞은 자리가 집채만 하게 폭 꺼져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경찰들, 한복 입은 여자들을 뺑 돌러 세워놓고 총을 쏘면 그리로 떨어졌어요. 국군이 들어오면 잡힌 인민군들, 아직 어린 학생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을 또 그런 곳에 쏘 세워놓고 총을 쏘았어요. 죽림동성당의 구리로 된 지붕도 폭격을 맞아 무너졌어요. 피난 갔다 돌아오니 동네가 불에 다 타버렸더군요. 말도 못하게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림동성당 일을 하셨지요? 오빠 김경호 가브리엘 씨는 어떻게 소양로성당에서 고 안토니오 신부와 일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수도회 신부님들에게서 목공을 배우신 후 춘천으로 이주해서 일을 하셨어요. 죽림동성당 건축할 때 아버지께서 성전 장식과 성상 조각도 하시고,

나중에 양양성당을 지을 때도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죽림동성당 사목회장도 하셨고요. 김경호 가브리엘은 큰 오빠인데, 저와 12살 차이가 났어요. 오빠는 신학교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왔고, 춘천 소양로성당에서 고 안토니오 신부님을 돕는 복사(교리교사, 사무장)로 일했어요. 오빠는 고 신부님의 살신성인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때 주교님과 신부님들은 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신자들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성당을 지키고 계셨어요. 전황이 악화되자 고 안토니오 신부님과 오빠는 함께 주교와 죽림동성당으로 피신하려고 나섰는데, 가는 길에 인민군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그들은 두 분을 한데 묶어서 끌고 가다가 “그냥 여기서 죽어라” 한 모양이에요. 총탄 두 발을 맞은 신부님은 오빠 쪽으로 쓰러지셨고, 오빠는 어깨와 목에 두 발을 맞았습니다. 인민군들은 “더 쏘까?” “됐어. 죽은 것 같은데 총알 아까워!” 하며 가더라고요. 그날 밤 비가 왔고 줄로 묶인 팔목이 툭툭 부어서 고통스러웠대요. 밤새 돌에 비벼서 줄을 끊고 탈출했다고 해요. 고 안토니오 신부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은인이십니다. 저도 신부님을 몇 번 뵈 적이 있었어요. 인상이 참 좋고 잘생기셨어요. 굉장히 인자한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춘천에서 골롬반회 신부님들과 많이 만나셨지요?

죽림동성당(옛 춘천성당)에 다니면서 학생회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했어요. 본당 신부님들은 골롬반회 신부님들이셨고요. 점잖으시면서도 유머가 있었던 손 파트리치오 신부님, 특유의 걸음걸이로 성당을 거닐면서 기도하시던 오 후베르토 신부님, 참 어진 마음을 가지셨던 공 토마스 신부님... 그중에서 구인란 주교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 예뻐해 주셨는데, 아이들을 양쪽 팔에 매달고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던 우리는 깔깔대고 웃었어요. 가끔 커다란 사탕을 손에 쥐여 주셨고요. “수산나, 이다음에 커서 수녀원에 가렴” 하시던 저는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왜정 때는 쌀이며 낫그릇이며 공출해 갔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가끔 쌀이 생겼어요. 공소 회장님이 쌀을 리어카 밑에 숨겨놓고, 나뭇가지를 덮어 구 주교님께 갖다 드리면, 그걸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거죠. 아침 미사에 가면 구 주교님이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서 자루에 넣은 쌀을 등에 얹혀 주셨어요. 엄마는 포대기에 아기 업듯이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가셨던 구 주교님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이상하게 마른 모습에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분입니다.

후원회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군요.

외국의 후원자들 덕분에 신부님들이 한국에서 선교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후원을 해야겠



김영자님의 부부와 구인란 주교, 김영자님의 남편은 구 주교에게 물려 쌀을 주었던 공소 회장의 아들이다.

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후원을 해서 신학생과 선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저는 좋은 몫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잡지에 실린 선교사들의 글을 읽으면 ‘예전에 우리 신부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애뜻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선교 생활할 수 있도록 늘 기도드리는데, 그러면 도로 그 축복이 저에게 오는 것을 느껴요. 신부님들도 후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 떠날 때까지 후원회원으로 살고 싶어요. 감히 은혜 갚을 생각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춘천에서 만났던 신부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

고 안토니오 신부는 1913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며, 1939년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성당에서 사목할 때는 일본군에게 가택연금을 당했고, 1950년 춘천 소양로성당에서 일하다가 1950년 6월 27일에 북한군에게 총살당하여 순교하였다. 총을 맞기 전 같이 있던 복사 김경호 가브리엘에게 “자네는 처자식이 있으니 꼭 살아야 하네, 저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면, 재빨리 쓰러지게. 내가 쓰러지면서 자네를 덮치겠네.” 하였고, 그렇게 실행하였다. 그리고 김경호 가브리엘은 살아남아 이 일을 증언하였다. 고 안토니오 신부는 한국 천주교가 시복 심사 중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중 한 분이다.



고 안토니오 Anthony Collier 신부

우리 공소에 빛이 있다

박상호 라파엘 신부

대전교구 소속으로 201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서 2018년에 남미 페루로 파견되어 현재 수도 리마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닭 요리에 도전한 박상호 신부

저는 리마 시 북쪽에 있는 완도이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2018년 12월에 '거룩한 대천사(Santo Arcángel)'라는 본당에 부임하여 사목하고 있는 초보(?) 선교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신자분들과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은 아주 쉽고 빠른 방법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저 역시도 제가 돈을 내서 새 전선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잠시 고민을 하였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아가서 그분들에게도 공소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소중한 장소라는 사실을 더

제가 맡고 있는 공소 중 한 곳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사나 모임 전에 100m 정도 되는 긴 전선을 가져가서 이웃집에 부탁하여 전기를 빌려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사 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동네 전체가 정전인 줄 알고 밖에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 공소만 캄캄해져서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촛불을 더 밝혀 미사를 마친 뒤 원인을 찾아보니, 공소와 이웃집을 연결한 긴 전선이 너무 낡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신자분들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회의를 하였는데, 그분들은 “신부님께서 돈을 주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신

공소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신자들이 요리를 만들어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 일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함께 요리를 해서 이웃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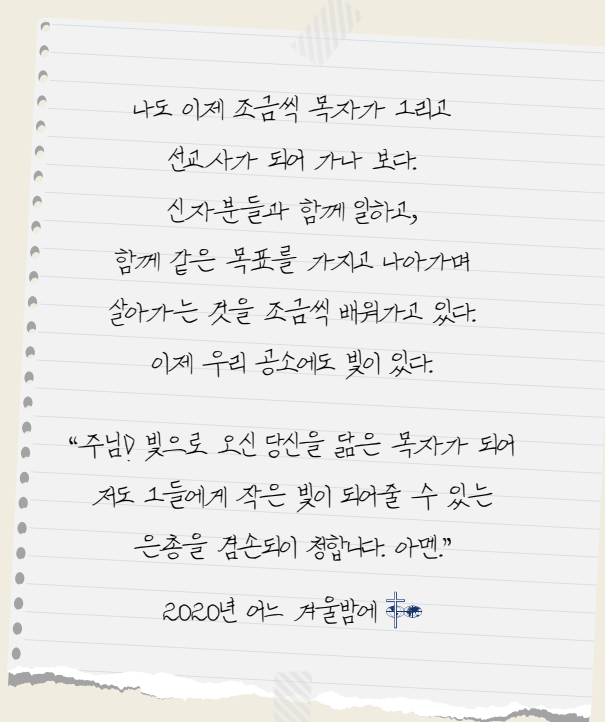
닭 요리를 해서 판매하기로 한 날, 새벽 6시부터 다 같이 모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공소에 수도 시설도 가스 시설도 없었기에 장작을 나르고, 물을 떠 나르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형제님들 수가 적은 공소여서 제가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는데, 부끄럽지만 일하는 동안 몇 번이나 속으로 ‘그냥 내가 돈 주고 전선을 살걸.’ 하며 후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 기쁘게 하려고 모두 노력하였고, 이웃 주민들도 많이 와서 저희가 만든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덕분에 신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과도 대화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일은 오후 4시가 되어서 마쳤고, 전선을 사고도 공소에 의자를 더 마련할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신자분들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고 일하며 대화할 수 있었던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접 노력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하느님의 성전에 빛을 밝혀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항상 쉽고 빠른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 눈에 보이는 빠른 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도 하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항상 찾으려 노력하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 깨어 있어야 함을 더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신자분들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누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느님의 뜻을 찾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공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날 저녁에 적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짧게 나누어 드립니다.



제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루다 이그발릭 선교사 / 번역·편집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필리핀 민다나오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014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첫 임기 3년은 의정부교구 능곡성당, 두 번째 3년은 봉일천성당과 파주 이주민센터 엑소더스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교회와 사회에서 함께 일했다. 올해 9월에 귀국하여 고향의 가난한 부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선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제 저는 6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헤어짐 앞에서 슬프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속 깊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선교 활동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 지면에 모두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시키셨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되어 본당을 포함한 여러 공동체와 이주민지원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노인, 아프거나 건강한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다채로운 경

험을 하였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 신앙, 희망, 사랑, 각자가 가진 고통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과 몸이 아프신 분들을 방문하여 이야기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만나면 당신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할 때는 듣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 진심이 담긴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드리며 부드러운 손길

3년 동안 함께하며 진한 우정을 만들었던 의정부교구 봉일천성당 제대회 봉사자들과 함께



로 만져드리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으로 함께해 드렸습니다. 그분들 또한 미소와 친절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으며, 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겸손하게 그리고 단순 소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저의 사명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함께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와 교회의 인도와 보호 아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어린이들은 너무 바빠서 만남의 시간은 늘 부족하였지만,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닫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잘 이끌며 많은 사랑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당의 미사 전례에 봉사자로 참여한 것 또한 대단한 경험이었습니 다. 본당 신부님은 저에게 독서 봉독과 성체 분배 활동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봉독하는 것도 어렵고, 성체 분배는 형제님들이 많이 하기에 전혀 마음의 준비를 못했지만, 선교사로 왔으니 그 기회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진심을 다해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독서하는 날, 많은 신자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떨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하느님께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감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저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선교 여정을 통해 안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에 동행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저와의 관계 안에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같이 기도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을 좋아했던 루다 선교사의정부교구 능곡성당에서 활동했던 첫 임기 때 모습)

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그들과 조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군중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공동체는 문화, 언어, 인종, 종교에 구애됨 없이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가톨릭(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사제들과 평신도 선교사들,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를 가족으로 맞아 주시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선교사 삶을 동반해 주신 영적지도자와 개인 동반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파주 엑소더스 이주민센터 공동체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특별히 저를 환영하고 선교 활동을 지지해 주셨던 의정부교구의 황주원 미카엘 신부님, 장광민 요셉 신부님, 곽준영 유스티노 신부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과 한국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한 여러분을 사랑하며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들을 날 날이 이야기 하렵니다”(시편 92).

코로나19와 가난한 사람들



김선희 안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1년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마닐라 근교 빠야타스 쓰레기 매립지 마을에서 살았고,
현재는 골롬반회 본당인 마닐라 말라떼 성당에서 활동하며
가난한 이들의 친구로 또 이웃으로 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필리핀 루손 지역에 강화된 지역격리가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병원 등 필수 시설과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중교통, 상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일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이동 제한과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하루아침에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전날, 골롬반 본부에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보낸 후 사목지로 돌아왔는데, 밤사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하룻밤 꿈처럼.

김선희 선교사가 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생애 첫 지역격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고요함이 좋았고, 예상하지 못한 여유시간이 생겨서 그동안 못했던 이런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주한 현실은 마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강화된 지역격리로 인해 생계 수단을 잃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가난에 고통받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빈민 지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나눠 주는 구호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이 도움을 호소하며 시위를 한 뉴스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단지 음식과 도움을 청한 것뿐인데, 격리 규정을 어기고 거리로 나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한 기본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과연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프니와 트라이시클(필리핀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 거리의 노점상,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사실 이들은 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

로 제가 사목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생명의 불을 밝히는 이들(Light the Life)" 양초 제작 프로젝트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8명의 엄마들이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더 이상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빈민 지역에 거주하는 엄마들을 돕고자 노혜인 선교사(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가 시작한 소규모 생계지원 프로젝트로써 좀 더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로 등록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 아직 미들링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안타깝게도 엄마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이고, 남편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일을 쉬고 있으니 아이에게 줄 우유를 살 돈조차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세 번씩 신장 투석을 받는 등 엄마들은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힘들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랑가이(한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긴급구호품을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비정기적이라 가물에 단비는 될지언정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 김선희 선교사가 언급한 신장 투석을 받던 자매는 투병 끝에 하느님 품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빈민 지역 생계지원 프로젝트 "생명의 불을 밝히는 이들"에서 양초 제작을 하는 자매들. 지역격리 이전의 모습이다.

지역격리 조치 이후, 성당에 갈 수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매일 미사와 전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신부님의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어,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방 벽에 붙여 놓고 '평화의 인사' 때 사진 속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사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편안해지며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격리 조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회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지만, 저의 사목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표준" 시대에 변화를 맞게 될 사목 활동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저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두려움과 걱정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

신학원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

안광훈 로벨도 신부 / 인터뷰 정리·김소영(편집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뉴질랜드 출생으로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원주교구 삼척 사직성당(1968~69), 정선성당(1969~79), 서울대교구 목동성당(1981~85)에서 사목하였으며, 골롬반회 초대 신학원장(1985~90)을 역임하였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삼양동 지역에서 도시빈민사목을 하고 있다.

원래 외방선교회는 파견된 나라에서 성소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에 가서 그곳의 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서 일할 그 나라 사제가 나오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세계는 가톨릭교회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선교회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은 활동하는 지역에서 성소자를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열린 첫 번째 골롬반회 총회(1970년 아일랜드 나반)에 참석한 교황청 해외선교 담당 추기경은 저희에게 이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이 새로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이야

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다음 총회까지 준비를 하고 그때 가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년 후 1976년 총회(필리핀 바기오)에서 선교지의 성소자를 받는 것에 관한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그 회의에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로 미루었습니다. 드디어 1982년 총회(페루 리마)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각 지부(나라)마다 경우와 현실에 따라 성소자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지부는 한국인 성소자를 받고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84년, 한국지부장이었던 故 서 로베르토 신부는 저에게 신학원장 수락을 부탁했고 저는 응답하였습니다. 그해 말, 관심 있는 세 사람이 찾아와 85년부터 프로그램을

2017년 석진욱 신부의 사제서품식에서 새사제에게 안수하는 안광훈 신부



신학원 축성식(2014년)을 앞두고 역대 신학원 양성자들과 정문에서 기념 촬영
왼쪽부터 남승원 신부, 안광훈 신부, 장영민 신부, 배민수 신부, 양창우 신부, 사진 속은 故 조요셉 신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회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한 명도 없었고, 1987년에 6명이 들어왔는데 그들 중 네 명이 훗날에 골롬반회원이 되어 사제서품을 받고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신학원은 종로구 사직동에 첫 동지를 틀었고 두 달 정도 살다가 본부 근처 성북구 삼선교의 가정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신학원의 식구가 늘어서 집이 좁게 되었는데, 마침 베네딕도 수녀원이 이사하면서 그 자리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학원과 평신도선교사센터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던 어느 날, 성 베네딕도 수녀회의 서울 관구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전세로 살던 건물을 매입할 의향을 물어왔고, 본부의 지원으로 우리는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양성자로서 경험도 준비된 것도 교육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배우고 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었지요. 선배가 없었으니 첫 신학생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해마다 신학생들이 들어오고 선배가 생기면서 신학원 생활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해외선교 사제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교구 신학생 양성과 차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는 경계와 벽을 넘어 다른 문화 속에서 여러 민족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마음을 배우고 또 가르쳐 주면서, 주고받는 가운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을 따라야 합니다. 양성자로서 이러한 점을 많이 강조했지만, 한국에서 말로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직접 체험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라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마침 해외선교 실습(FMA) 프로그램이 생겨서 신학생들은 선교지에서 2년 동안 살아보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해외로 나갔고, 외국에서 온 신학생들은 한국에서 저희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국제선교회인 골롬반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990년까지 6년 동안 신학원장으로 있었는데, 사제 생활을 통틀어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한 양성 프로그램이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동반자들을 보내 주셔서 마음의 짐을 나누어 들게 해주셨습니다. 故 게올리버 신부, 故 마 미카엘 신부, 전요한 신부, 주 예레미야 신부, 이어돈 미카엘 신부가 각각 부원장, 영성의 해, 영성지도 담당으로서 함께해 주었습니다. 1993년, 김종근 도밍고 신부가 첫 한국인 회원이 되고 사제품을 받았을 때 양성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어 비로소 안심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학원 참사로서 신학원 식구들을 동반합니다. 후원자들과 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 지은 신학원에서 학생들이 양성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요즘입니다. ✠

코로나 속 첫 본국 휴가



석진욱 안토니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대구 출신으로 2017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대만으로 파견되었다. 대만 신주교구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당의 주임으로 사목하고 있으며, 이주민, 장애인들과도 함께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만에 온 지 3년 만에 첫 본국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1월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이나 우한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 본부에서 며칠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마침 중국 우한에서 온 선배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전에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염 걱정은 없었지만, 저는 농담 반으로 “신부님, 코로나와 같이 들어온 거 아니죠?”라고 물었는데, 힘없는 목소리로 “걱

정 마. 괜찮아”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런 질문과 시선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생각하니 안타까웠고 미안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혐오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는 대만에서 5명의 원주민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어서 특별히 보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조금씩 퍼지고



원주민 축제에 전통 옷을 입고 참여하였다. 왼쪽은 대만에서 활동하는 골롬반회 살루스티노 신부, 가운데는 석진욱 신부가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있어서 고민을 좀 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국에 대한 시선이 따갑던 시기였기에 중국어를 쓰는 것이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농담으로 얘기하곤 했는데, 지하철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앉아 있던 분이 우리를 쳐다보더니 저만치 떨어진 좌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를 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원주민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차별과 혐오도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중순쯤,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감염 폭발이 일어났을 때, 저는 고향인 대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직 코로나에 관해 잘 몰랐던 시기였기에,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인터넷 매체를 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는 대구, 신천지 교인, 개신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경상도라는 곳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고, 국적과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대만에 돌아오니, 본당 신자들조차 제가 대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가까이 오기를 꺼렸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했지만, 2주간 격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도 가시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느낀 휴가였습니다. 제가 잠시 겪은 차별과 혐오를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향해 그 차별과 혐오를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저를 다



석진욱 신부는 폐제 기도 모임을 통하여 지적 장애인들을 기도의 장으로 초대하고 있다. 폐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각자 지향을 소리내어 기도한 후 안수를 받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본당을 옮겼지만,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까지 사목하던 본당에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와 쉼터가 있었고, 저는 장애인 센터 두 곳의 원목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차별과 혐오를 한국에서 겪은 짧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있던 노동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특별 강복 때 하신 이 말씀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으며, 오로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이주민과 함께 걷기



권세오 곤잘로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남미 칠레 출신으로 2016년에 칠레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1월 한국에 왔다. 대전교구 천안불당동 성당,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광주대교구 순천 이주민사목센터에서 이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2019년 초에 저는 목포가톨릭대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스캔 전화일 거라 짐작하여 받지 않다가 세 번째로 걸려온 전화를 결국 받았습니다.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말 대신 놀랍게도 목포에서 이주민 사목을 하는 김도균 안셀모 신부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님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억양으로 구사하는 영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돕겠다고 했고, 주일에 미사를 드리러 목포 이주민사목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촉매제가 되어 제 선교 여정에서 인생을 뒤바꿀 만한 뜻밖의 경험을 선사하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주민사목센터에 도착했을 때 출신지가 다양한 이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솔직히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목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회의에 참석한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성령께서는 평생시 시야에서 벗어난 한국의 일부를 보도록 저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사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3년 만에 첫 본국 휴가를 가게 되었습

니다. 칠레로 떠나기 얼마 전에 저는 골롬반회 한국지 부장에게 이주민 사목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제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휴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광주대교구로부터 이주민 사목 발령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물론, 성령께서 관여하시는지라 인간의 계획과 달리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죠. 그사이 다른 사제가 목포로 발령받은 것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께서는 제게 골롬반회에서 지난 60년간 활동해본 적 없는 순천으로 가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며칠간 고민해 보고 자문한 끝에 저는 주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순천에 오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9월 27일 제106차 세계 이민의 날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난을 강요당하다>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의 경험에 비추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난민(실향민)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곳에 오고나서 몇 주간은 유독 바빴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순천 이주민사목센터의 김 마리 우성 수녀님께서 전화를 걸어 분만이 시작된 베트남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비록 당나귀를 끌고 간게 아니라 봉고차를 몰고 가긴 했지만 저는 그때 마리

<2019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총 2,524,656명(대한민국 인구 100명 중 5명)
단순기능인력 520,680명
결혼이민자 166,025명(전남지역 6,713명)
미등록(불법체류자) 390,281명
출처: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9년 12월 말 현재



순천에서 만나고 있는 이주민들과 함께 음식 나눔을 하였을 때

아를 나자렛으로 모시고 간 성 요셉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낳은 쌍둥이, 그 아름답고 천사 같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했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출산인데도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출산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는 비자나 이주민 신분에 문제가 생겨 종종 해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산모의 출산을 돕게 된 일은 제 기도 중에 깊이 자리 잡았고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이사 9,5)가 새롭게 다가오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순천에서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이주민 자녀들이 성체를 모실 수 있게 준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활동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다양한 만큼 아주 흥미롭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 동유럽, 남아프리카, 미국, 영국, 아일랜드에서 온 다양한 이주민들에게 사목을 할 수 있어 저로서는 대단한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헌신적으로 해오신 광주대교구 순천 조곡동성당 고재경 레오 신부님과 순천 이주민사목센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사목 활동도 코로나로 인해 전혀 새로운 차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시 임무가 축소됐고 제 사목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병자들과 성체를 나누려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으니깐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다음과 같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우리를 북돋습니다. “출발하는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교회입니다. 인류의 변두리까지 가장 멀리 다른 이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정처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걸음을 늦추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듣는 편이 더 좋습니다. 또한 다급한 일들을 멈추고 길가에 남겨진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복음의 기쁨』 46항). ✠

영성의 해를 마치고



성요섭 요셉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의정부교구 출신으로 2016년에 입회하였다. 영성의 해를 마치고 지난여름 귀국하여, 서울 가톨릭대학교 6학년에 복학하였다.

2018년 8월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수련 과정인 '영성의 해'를 지내기 위해 약 2년간의 타지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사는 것이 처음이었고,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했기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신학원장 펠리시아노 신부님과 지광규 신부님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닐라 근처 케손시에 위치한 신학원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지광규 신부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그곳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신학원의 가족들, 미얀마, 피지, 필리핀,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골롬반회 신학생들이 함께 살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였다.



않았습니다. 딱 막힌 도로, 소음, 칠해져 있지 않은 건물의 삭막한 외벽, 그리고 길을 지나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무척 생경했습니다. 2015년에 성소자였을 때, 선교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름간 필리핀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필리핀의 현실을 마주하니 과연 2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신학원에 도착했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피정을 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지난 뒤에나 형제들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골롬반회 신학원에는 미얀마, 중국, 키리바시, 피지,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저를 포함한 20명의 신학생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피정에서 돌아온 형제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때부터 살뜰히 챙겨주었는데, 영어가 서툴렀던 저를 위해 형제들은 원장 신부님의 공지사함이나 신학생들 안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같이 가자고 먼저 말해 주었고, 휴일에는 형제들의 출신 나라에서 온 사제들이나 신자들의 모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필리핀 생활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혼자 한국에서 왔기에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생경함과 두려움은 점점 익숙함과 자신감으로 변했고, 저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저 자신을 형제들과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졌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역동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성탄절 휴가와 여름방학 중에 형제들과 함께 필리핀의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자기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가끔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무지로, 또 개인적인 성향의



방학을 맞아 동료 신학생들과 필리핀 지역을 여행했을 때, 필자의 오른쪽은 한국인 이정락 신학생이다.

차이로 사이가 불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언어의 한계로 소통에 문제가 생겨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한 이 모든 기억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던 형제들과의 기억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해 쉽지 않았음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 알고자 시도했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에 그중에서 소수인 나라의 형제를 먼저 배려하려 했고, 또 모두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골롬반회 방선교회가 국제 공동체임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초,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년 동안 필리핀 생활은 저에게 나와 내 이웃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양성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 체험하며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성의 해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형제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선교사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의

CMS 자동이체의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후원회 월례미사

2020년 9월 ~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	-	-	6일	4일	돈암동 골룸반본부	02-929-2977
인천	-	13일	10일	8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	14일	11일	9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1일	9일	13일	11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5일	23일	27일	25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2일	27일	24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3일	28일	25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4일	29일	26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5일	30일	27일	-	광주 골룸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0일	-	-	10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6일	21일	18일	16일	제주 골룸반 사제관	064-711-2471
	15일	-	17일	-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	20일	-	15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 후원회 •서울 본부: 11월(피정 미정) •하안: 12월(성탄절)

광주 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광주 지역 피정은 미사로 대신합니다.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룸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살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룸반외방선교회

안인성 신부 한국지부 편집장 부임

안인성 패트릭 신부가 7월부터 선교잡지 『골롬반선교』 편집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인 안 신부는 84년에 한국에 와서 2년간 학생 실습을 하였고, 1987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돌아와 서울, 전남 영광, 광주에서 사목하였습니다. 1995년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선교 활동을 하였고, 2005년에 다시 한국으로 파견되어 선교 연구실장을 맡았으며, 생태와 환경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신부 남미 지부 발령

한국지부 편집장으로 활동하였던 김종근 도밍고 신부가 7월부터 골롬반회 남미 지부로 발령을 받고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골롬반회원인 김 신부는 1993년 사제서품을 받고, 남미 칠레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에 한국지부장으로서 임명되어 3년간 일하였습니다. 칠레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이웃이자 친구, 목자로서 살았던 김종근 신부가 늘 그 리워하던 칠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을 맞은 주 예레미야 신부

주 예레미야 신부가 올해 구순을 맞았습니다. 아흔 번째 생일이었던 6월 1일, 제주 골롬반의 집에서 동료 사제들과 제주 후원회원들과 함께 감사 미사를 드렸습니다(사진). 1930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954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파견되어 올해 한국 선교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제주에 살면서 후원회원들과 수도자들을 만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전해 주시는 언제나 청춘, 주 예레미야 신부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왼쪽부터 황 프란치스코 신부, 주 예레미야 신부, 이어돈 신부, 오기백 신부

전요한 신부 아일랜드로 귀국

전요한 신부가 50여 년에 걸친 한국 선교 여정을 마치고, 9월에 고향 아일랜드로 떠납니다. 1969년 한국에 온 전 신부는 광주대교구 함평·흑산 본당에서 사목했고, 서울에 와서 대학생 사목, 성신야학, 선택 프로그램 한국 도입, 신학생 양성 등을 하였으며, 최근까지 후원회, 르투르바이(훈인의 재발견), 중독자 모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향 골웨이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부님께서 걸으셨던 사랑의 길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신부님,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요한 신부가 본부 정원에 직접 심은 개나리는 부활을 표현하는 꽃이라 평소 전 신부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가꾸었다.

평신도선교사 소식

2014년부터 대만에서 활동했던 배시현 소화 데레사, 이수빈 마틸다, 김선희 마리아 선교사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지난 7월 한국에 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원주민, HIV 환자, 수감자·청년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루다 이그발릭 선교사가 6년 동안의 한국 선교 생활을 마치고 9월에 출국합니다. 앞으로 고향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14~15쪽 참조).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골롬반회 평신도 선교사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시현 소화 데레사 이수빈 마틸다 김선희 마리아

2020년 해외선교지도 발행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 현황을 담은 해외선교지도가 나왔습니다. 각 선교회, 수도회, 교구에서 파견한 한국인 선교사 수와 활동 국가 등 선교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 지도는 한국가톨릭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회장 골롬반회 남승원 신부)가 통계와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2년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내용을 보면, 현재(2020년 5월 말) 81개국에서 1,026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골롬반 선교센터 02) 953-0613



김영인 신부 한국지부 발령

페루에서 선교했던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가 한국지부로 발령을 받고, 지난 7월 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2011년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남미 페루에 파견된 김영인 신부는 페루 쿠스코 지역 고산지대인 야나오카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귀국 일정이 미루어지고, 서울 본부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 험거운 귀국길이었지만,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영인 신부는 신학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신학원 소식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영어연수와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했던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 성요셉 요셉 신학생이 건강하게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사진). 또한, 여름 방학을 보내고 신학원에 복귀한 신학생들은 8월 17일부터 6일간 영성과 심리 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하였으며, 이어서 2학기를 준비하는 피정을 하였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기도 속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에는 더욱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저만치 물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회 소식

코로나로 모든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잠시 완화되던 시기에 각 교구의 상황과 지침에 따라 후원회 월례미사도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광주 골롬반 회관, 원주 원동성당, 수원교구 원곡·하안성당, 인천교구 부평2동성당에서 오랜만에 후원회원들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대학교 정릉성당에서 교우 여러분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 기뻐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본당 신부님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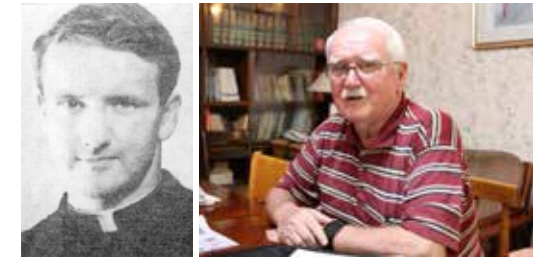


정릉성당에서 선교 홍보 및 후원회원 모임을 했을 때, 노혜인 평신도선교사(왼쪽), 최두례 후원회장

노기석 노엘(Noel Connolly) 신부 선종

광주대교구와 원주교구에서 선교하였던 노기석 노엘 신부가 6월 6일 고향 호주에서 선종하였습니다(향년 75세). 1945년 퀸즐랜드주 출생인 그는 1969년 사제품을 받고 광주대교구 일로성당, 원주교구 함백성당에서 사목하였습니다. 1974년 한국을 떠나 로마에서 윤리신학을 전공한 후 호주 골롬반신학교 학장(1979~1984) 등 많은 활동을 하던 이 시기에, 시드니 한인 천주교 공동체 시작을 함께 준비하였으며 2대 주임 신부로 사목하였습니다. 아일랜드에 거주했을 때인 1988년에는 골롬반회 부총장으로 선출되어 2000년까지 일하였습니다. 이후에 선종할 때까지 호주에서 여러 활동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선교학자로서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두루 강의했습니다. 한국 선교 경험은 평

생 노엘 신부의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목자였던 노기석 노엘 신부를 기억해 주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여 년 전 한국에서 사목했을 때(왼쪽)
201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오른쪽)

춘천교구 소양로성당 70주년 · 전쟁 순교자 고 안토니오 신부 70주기 기념 미사

6월 27일 춘천 소양로성당에서 초대 주임 고 안토니오 신부 순교 70주기를 기념하는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는 설립 70주년 감사 미사를 겸하여 춘천교구장 김윤희 주교 주례로 소양로본당 주임 김현준 신부, 골롬반회 기리암 신부 등 사제단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는 전쟁 발발 이틀 후 북한군의 총탄을 맞고 죽는 순간에도 곁에 있던 본당의 복사를 살렸습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를 기리는 이 성당은 2008년 춘천교구 사적 '살신성인 기념성당'으로 지정되었습니다(10~11쪽 참조).



왼쪽부터 기리암 신부, 남승원 신부, 김영자 수산나(故 김경호 님의 동생) 선생, 김현준 신부

선종하신 후원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종하신 후원회원과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생전에 골롬반회의 동반자로서 함께하셨던 고인의 선교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

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리마 외곽 지역의 어느 가정집 앞.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정이 14처로 정해지면 본당 신자들이 방문하여 집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한다.
사진: 지원사제 전보근 안드레아 신부(전주교구)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엠타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신부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